

다산포럼

나는 여자다



최명원
성균관대 독어독문과 교수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나는 교수다. 그래서 나는 여교수다. 그런데 내 성은 ‘여’가 아니다. 내 성은 ‘최’다. 우리 학교에는 ‘여(呂)씨들의 모임이 아닌 ‘여교수회’가 있다. 내 주위에는 많은 남자 교수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남교수가 아니다. 그들은 성씨가 ‘남(南)’이 아니고서는 ‘남교수’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리고 ‘남교수회’도 없다.

의사·선생·검사 등에서도 그렇듯이 ‘교수’라는 직업명은 이론적으로 남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지만, 우리의 언어 습관은 여기에 ‘우선 남자로 인식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놓고, 여자에게는 ‘여(女)의 화관(花冠)을 씌워 그 의미(0)를 더해 준다. 지금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 자리를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녁 무렵 교내에서 마주친 한(남)교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셨다. “아니 이 시간에 아직도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집에 가서 신랑 밭도 해 주고 애도 챙겨 주고 해야지!” 나보다 연배가 높으셨던 그(남)교수님에게는, 주부로서 당연히 가정용 견사해야 할 그 시간에 직장의 율타리 안에서 어정거리는 내 모습이 바로 엉망진창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가늠케 하는 확실한 단서와 증거 정황이 되었던가 보다.

우리 가족에 대한 그분의 진심어린 염려와 우려의 표명은 내가 감히 감사의 말로 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순간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기에 계시는 바로 그와 똑같은 이유로 저도 아직 여기에 있어요!” 저녁 시간에도 연구실을 떠나지 않고 어슬렁거리는 내 모습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가사노동을 짊어질 책임에 대한 직무유기’의 판단 근거가 되는 반면, ‘나인 투 식스’(9 to 6)의 근무 시간에도 일을 하는 직장여성들에게는 퇴근 시간을 넘기고도 일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안절부절이 무책임하고 불량한 근무 태도로 낙인되어 불만 유발 인자로 작동한다. “여자들은 뽀아 뽀아 그저 집안 일이다. 애다 하면서 퇴근할 생각만 하고 있어!”라는 힐난의 소리와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분법이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사고는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양분된 절대적 가치가 대상을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다. 여기에는 ‘살아 있는 (+/on)’, 혹은 ‘죽은 (-/off)’ 같은 양극의 대립 관계만이 존재하고, 길거나 짧은 것처럼 무엇과 견주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이 될 수 있는 상대적 관점의 회색지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바로 이 이분법의 잣대 속으로 편입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분명한 이분법의 잣대 안에서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뇌의 죽음(腦死)은 ‘살아 있음(on/+)’과 ‘죽음(off/-)’에 대한 판단을 유보시키고, 트랜스젠더의 문제는 ‘여자라면 남자일 수 없고, 남자라면 여자일 수 없다’라는 그토록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온통 흔들여 놓는다.

과거 우리에게서 난무했던 이분법의 잣대 중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남학생은 독일어’, ‘여학생은 프랑스어’라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유행하던 역사의 일목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이과 반 남자’와 ‘문과 반 여자’와 같은 이분법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직업이 선택되도록 길들여졌다. 그리고 지금도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편견

과 평가의 잣대는 도처에서 여전히 그 위세를 부리고 있다.

남녀를 가르는 생물학적 차이의 ‘여자’라는 어휘에 임신과 출산, 모유 수유의 의미가 고스란히 ‘여(여)0 있다’. 그런데 세상이 바라보는 여자는 생물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통념의 성(젠더)인 ‘여성’이라는 안경을 쓴 차별적 관점을 통해서다.

남녀의 이분법 안에서 유독 여자에게만 ‘여(女)의 왕관을 씌워 ‘슈퍼우먼’으로서 등극시켜 놓고, 편견의 무게까지 얹어 주며 견디라 한다. 여기에 생물학적 ‘차이’에다 사회의 편견이 만든 ‘차별’까지 한몫하며 거두고 있다.

여성을 사회적 동력으로 끌어들이면서 ‘차별의 시선’을 버리고, 뛰어난 수 있는 ‘차이’의 ‘백’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 줄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 차이들이 완벽하게 대체될 수 있는 보상은 아니더라도, 경제적 지원과 복지 시스템을 통해서, 차이가 차별로 인식되고 실행되는 부조리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만큼, 그 어떤 물리적 변화보다도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곧잘 이분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활개 치는 ‘의식’의 변화임은 말할 것도 없다.

社說

현재 탄핵심판 조기 선고는 국민의 뜻이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란을 피우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진행된 15차 변론 막바지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이정미 현재소장 권한대행의 선언 이후 변론권을 무리하게 요청하면서 급기야 고성을 지르며 재판 진행마저 방해한 것이다. 김씨는 “제가 당노가 있어 어지럼증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시간을 주시면 점심 식사 후 변론하겠다”며 열도 당도않은 요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탄핵 심판 조기 선고 의지는 확실한 것 같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 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24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기일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유보했다. 현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 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3월 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함께 오는 22일 증인 신문이 예정된 안중법 전 수석과 최순실 씨의 출석 여부가 따라 최종 변론일을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나온다면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변론이 끝난 뒤에 나오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내달 13일 이전에 결론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이는 대부분 국민의 뜻이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측은 현재 출석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시간 끌기용인데 헛된 기대다. 나라를 이리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자신만 살아나면 무슨 소용인가.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잘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설득과 협의로 슬기롭게

경기도 수원외의 군 공항과 대구 통합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마침 광주시 또한 다음달부터 2개월간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돌며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전 예비 후보지인 전남 지역 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후보지 선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과 기존 공항 부지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께 중간 결과가 나오면 이전 대상 지역을 3~4곳으로 좁혀 군 공항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3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어서 군 공항 이전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예비 후보지 대상인 전남 지역의 반발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점이다. 전남도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최근 전남도의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발족이 바로 그것인데 후보지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지원단을, 광주시의회는 군 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소문 문제 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 공항 이전 내용과 4500억 원가량의 주민 지원 사업을 소상히 설명함으로써 전남 도민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교단에서

문턱이 낮은 학교



김진구
우산중학교 교감

시골 학교 가정방문은 마을 단위로 비포장 도로나 논두렁을 따라다녔고, 도시에서는 동 별로 골목길을 돌아 학생들과 떼지어 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담임교사를 만난 학부모는 몸 둘 바를 몰랐다. 무슨 잘못이나 한 것처럼 뒷머리를 긁적이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만 했다. 학생도 이 모습을 슬쩍 꺾는질로 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마당이나 마루에 걸터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 환경을 살피기도 했다. 사이다와 막걸리, 깍두기가 한쪽에 놓여있고, 날계란을 탁개서 건네기도 했다.

이 정도의 방문이고 만남이어도 효과는 컸다. 가정방문이 끝난 후 학부모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지고, 인사는 더 공손해진다. 학생에게 건네는 눈빛도 더 친근해진다. 말쑥 많은 촌지 때문이 아니다. 어느

학생은 무엇을 더 채워주고, 어느 학생은 어떤 것을 더 키워줄 것인지 조금은 짐작이 간다. 교단에서 학생의 생활환경을 안다는 것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지금은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폭력, 결석, 기출 등 비행이 발생했을 때 신속 차원의 방문이고 상담이다. 각박한 단절의 시대일수록 미리 만나야 더 교육적이다. 아이의 장단점이나 가정 환경을 스텝없이 얘기하는 학부모에게는 더 정답이 없다. 어려운 사정이나 간절한 소망을 낮은 자세로 따뜻하게 들어주는 교사는 존경받는다.

예전에 S0교 교장 공모 학교경영계획서를 쓸 때 제목이 ‘문턱은 낮고, 명에는 높은 학교’였다. 평소 학교 문턱이 더 낮아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문턱 낮고’ 구절은 쉬웠으나 그 뒷구가 어려웠다. 무엇이 높은 학교가 좋을까. 실력, 자긍심, 품 등은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갈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단어를 찾다가 명예란 단어를 썼다. 이 제목 때문에 근무하면서 ‘문턱은 높고, 명에는 낮은 학교’가 되면 어쩌지 내내 걱정을 많이 했다.

철이 들면서부터 학교 문턱과 은행 문턱이 낮아져야 세상살이가 더 좋아지겠구나 생각했다. 산업화 시대로 들어서면

서 은행돈 잘 빌려 쓰는 기업이나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다. 서민은 은행돈 빌리기 어려웠고 액수도 미미했다. 은행 문턱은 높기만 했다.

또 낮아야할 곳이 학교 문턱이라고 생각했다. 학교를 찾아가려면 망설여지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자식이 다니는 학교 방문은 가법지 않았다. 치맛바람, 성적, 촌지 등 여러 연유로 학교를 쉽게 출입하기에는 문턱이 높았다.

문턱이 낮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에게 오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용하는 따뜻한 학교,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고 소소한 이야기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학교가 바로 문턱이 낮은 학교이다. 요즘에는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장실로 찾아가 큰 소리부터 질러놓고 대화를 시작하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다. 교사가 받은 상처와 교단의 후유증은 크고 오래간다. 문턱이 너무 낮아져버렸나 하는 생각이 든다.

새학기가 온다. 새내기 초1, 중1, 고1에게는 큰 변화의 문턱이다. 상큼한 새 책의 잉크냄새만큼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크다. 학부모들은 삼급 학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이의 가정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잘 적응할지 걱정도 많다. 낮설고 급변한 환경에 힘들어 했던 기억을 누구나 가

지고 있다. 자신의 유년이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이다.

새학기에 가정방문을 충실히 해보기로 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안내문을 보내고 학부모와 사전에 의견을 나눠 방문할 날짜를 정할 것이지만 가정방문을 원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학교를 편하게 방문하게 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사회 소통은 당사자의 직접 대화이다. 학교의 소통구조는 약간 다르다. 문자, 메일, 통신문, 카톡 등 소통의 수단이 많아졌지만 아직도 교사와 학부모 의견의 그 중간에서 학생이 전해주는 간접 대화 방식이다. 여기에서 어떤 사안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가정으로 찾아가든, 학교로 방문하든 간에 담임교사와 학부모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MBC 즉 입(Mouth), 교과서(Book), 분필(Chalk)만 가지고도 교단에서 유능한 선생님이나 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 대부분 지식은 선생님의 입이나 책에서 나왔고, 이것을 분필로 칠판에 정리하면 학생들이 받아쓰던 시절 말이다. 지금은 지식 전수 못지않게 문턱이 낮은 학교, 가슴이 따뜻한 교사가 더 필요한 시대이다.

기 고

‘혼자’보다는 ‘우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요즘은 밥때가 돼서 밥은 먹어야 하는데 혼자 식당에 들어가 먹기가 맞잡해진다. 밥을 먹기엔 밥만 필요하지 않다. 바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은 보편적 성질이 혼자 뭔가 하기를 두려워한다. 혼자 영화를 보는 것부터 혼자 공연장을 가는 것, 혼자 여행을 가는 것, 그리고 하루에 두세 번은 겪어야 하는 혼자 밥을 먹는 것, 혼자 선물집에 앉아 술을 먹는 것 등 자연스럽게 시선을 두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옛날의 우리 모습을 떠올려 본다. 명절에 모두가 모여 밥을 먹는 모습이다. 큰 교자상을 몇 개 이어 붙이고, 할아버지부터 어린 손주까지 3대가 둘러앉는다. 밥상 위 음식들은 몇

끼는 죽히 먹어야 할 만큼이 올려지고, 여러 쌍의 수저가 놓인다. 함께 밥을 먹기 위해 모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모습이다. ‘혼자’와 ‘우리’의 차이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밥’은 일상을 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며, ‘나눔’의 상징 같은 일이다. 최근 유행성조어로 ‘밥’에 ‘혼밥’이란 말이 생겼다. 금요일 밤이면 방송되는 1인 가구의 이야기 ‘나 혼자 산다’, 결혼 안 한 노총각들의 생활을 엿보는 ‘미운 우리 새끼’엔 혼자 밥을 먹는 그들이 등장한다. 혼자 먹기에, 차려 먹기보다는 시켜 먹고, 제대로 먹기보다는 간편하게 먹는다. 요리 프로에서도 혼자 해먹는 밥에 주목하고 있으니, ‘혼자’는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이다.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1인 가구는 520만 가구 전체 1911만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27.2%를 차지했다. 그 뒤로 2인 가구 26.1%, 3인 가구 21.5%, 4인 가구 18.8%, 5인 이상 가구 6.4% 순이었다.

1990년 불과 9.0%에 불과했던 1인 가구 비율이 빠른 속도로 불어 2016년에는 미국(28.0%)과 영국(28.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다만, 아직 일본(32.7%)보

다 낫다. 1990~2005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은 4인 가구였지만 2010년 처음으로 2인 가구가 역전했고 2015년 1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만혼·이혼의 보편화와 고령화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실제 1인 가구 가구주 연령을 살펴본 결과 30대(18.3%), 70대 이상(17.5%), 20대(17.0%)가 1~3위를 차지했다. 또 남성 1인 가구 가운데 30대 가구주가 23.5%로 가장 많은 반면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70세 이상 가구주가 27.6%로 가장 많았다. 한편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07만명으로 2010년 4971만명에 비해 2.7%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독거(獨居)가 대세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혼밥’과 ‘혼술’을 다루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1인 가구 예능이 인기를 끄는 시대, 전화를 해서 서로 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상의 소식을 나누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수많은 1인 가구가 비교적 널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늘 인터넷으로 SNS로 사람들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진정성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서로를 궁금해 하고, 진정으로 얘기를 나누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는 일, 우리가 하루에 세 번이나 밥을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도, 하루에 세 번은 누군가와 함께하라는, 축복 같은 기회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부터 지인에게 ‘밥 한번 먹자’며 말을 건네지 않았을까?

밥을 먹으면서 결국은 마음까지 나누게 된다. ‘혼자’가 대세인 요즘 ‘우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혼자보다는 둘이 좋다.

명절과 기념일 모든 가족이 모여 소속감을 공유하며 나눔으로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우리 같이 나눔으로 삶을 만들어나간다면 행복은 항상 가까워서 우리를 반길 것이다.

게다가 씁쓸이 현저히 떨어진 지금 우리살 소비에도 일조하여 주름진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필자는 감히 같이 밥먹기를 권유해 본다. 나라 전체적으로 혼란한 이 시기 ‘혼자’보다는 ‘우리’의 의미를 되새겨 보자.

無 等 鼓

전한(前漢)시대 원제의 후궁이었던 왕소군은 중국 역사상 4대 미인으로 꼽힌다. 날아간 기러기가 왕소군의 서글픈 비파 소리를 듣고 내려 보다가 미모에 반해 날갯짓을 잊고 떨어졌다는 일화에서 ‘낙안(落雁)이란 별칭을 얻을 정도였다.

미모와 간택을 받는 것은 별개였다. 18세에 궁녀로 입궐했으나 5년간 단 한 번도 황제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아무리 미모가 출중해도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궁녀를 일일이 볼 수 없는 황제는 초상화로 잡자리 상대를 선택하는데 모연수가 왕소군을 추녀 중에서도 추녀로 그린 탓이다. 다른 궁녀들은 얼굴을 최대한 예쁘게 그려 달라며 모연수에게 앞 다투되 뇌물을 바쳤지만 왕소군은 한 푼도 쓰지 않았으니 미녀로 그려 줄리 만무했다.

때마침 흉노족 선우(우두머리)인 호한야가 한나라에 청혼을 해 왔다. 한나라 입장에선 고조 유향이 흉노와 화친을 위해 공주를 선우에게 시집보내기로 합의한 만큼 거절할 수 없었다. 원제는 고민 끝에 가장 못생긴 왕소군을 보내기로

하고 마지막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장에서 왕소군을 처음 본 원제는 미모에 다 단아한 모습에 땅을 쳤다. 하지만 돌릴 수는 없는 법. 모연수의 목을 베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원지 없게 오랑캐 땅에 시집간 왕소군의 삶은 비극적이었다. 기원전 31년 호한야가 결혼 2년 만에 죽자 왕소군이 한나라 성제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상소를 올렸지만 “흉노의 풍습에 따라”는 답변뿐이었다.

대모 호한야 전처 소생 아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왕소군은 화친을 위해 이민족 왕에게

공주나 후궁을 시집보내는 화번공주(和蕃公主)라는 제도의 첫 번째 희생자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당나라 시인 동방규는 소군원(昭君怨)에서 “오랑캐 땅이라도 꽃과 풀이 없으리라는 불이 와도 볼 낱지 않구나”(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라며 왕소군의 울적한 심정을 노래했다. 입춘과 우수가 지나고 꽃 소식이 들려오지만 봄을 느끼지 못한다. 왕소군의 슬픈 사연 때문일까, 무엇 하나 따뜻한 말을 전해 주지 못하는 어지러운 현실 때문일까.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번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